

6/7(화) 느헤미야 묵상 5

느헤미야 3:1-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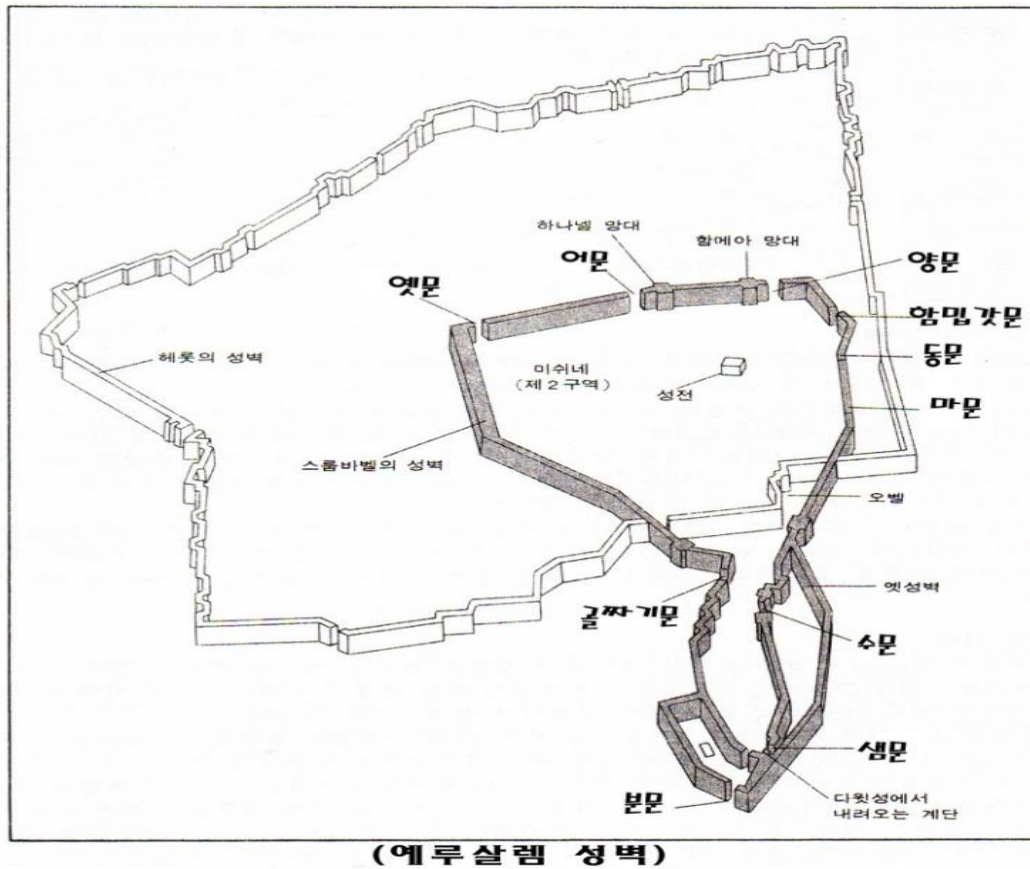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처음에는 심히 두려워하다가 그들을 비웃고 업신여기게 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들의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담대히 성벽 재건을 시작하게 됩니다(느20:19-20,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성벽 재건

느헤미야 3장의 말씀은 성벽 재건을 위하여 누가 어떤 부분의 역할을 분담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분담은 느헤미야와 소수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 느헤미야는 이미 예루살렘 성벽을 몰래 탐방하고 왔기 때문입니다(느 2:12하,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1절을 보면 먼저 대제사장 엘리아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등장합니다(1절,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매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이들은 소위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명단의 맨 첫 부분에 기록된 것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이 앞장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큰 도전과 영적인 자극이 되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은 총 52일 만에 완성됩니다. 이같은 결과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느헤미야를 비롯한 영적 지도자들의 탁월한 리더쉽과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에 나타난 한 민족과 국가의 흥망성쇠는 지도자들의 모습에 달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인 다윗 시대만 보더라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방 신과 우상을 믿고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가의 위정자들이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고 성실한 자세로 국정에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때도 사역자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며 또 사역의 성령충만을 위해서 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순조롭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5절,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의 귀족들은 자신과 동족의 생명 그리고 안전을 위한 성벽 재건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귀족’이라는 것은 아마도 그들이 잘사는 사람들로써 성벽 재건이 자신들과 같은 부유한 사람들은 안해도 되는 일처럼 여긴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부나 지식 그리고 명예’는 모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이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잠시 주신 은사이며 선물입니다(눅 12:19-21,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 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부와 지식 그리고

건강'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 하게 하는 일에 더욱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의 사역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에 따라서 함께 협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신 것처럼 우리는 내가 가진 은사가 비록 보잘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유명하고 능력 있는 몇몇 사람이 주도하고 섬기는 그런 교회보다는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다 같이 일하고 섬기는 교회를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둘째로 좋은 공동체는 좋은 지도자와 좋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말씀이 좋고 인격적으로 좋은 목사님이 계시고 또 좋은 교역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도란 오늘 말씀의 백성들처럼 자신의 은사에 따라 적극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말씀과 기도로 협력하는 성도를 말합니다. 바라는 우리 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미얀마를 위한 기도:**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 이후 2021 년 2 월부터 2022 년 1 월까지 친(Chin)주에서 약 35 개, 카야(Kayah)주에서 약 12 개의 교회가 파괴되었고, 부속 건물도 12 개나 파괴되었다고 4 월 5 일 기독교 매체(CP)가 보도했다. 미얀마에서 두 개 주는 기독교인 다수가

거주하는 지역이다. 현지 매체는 작년 말부터 미얀마 군부가 이곳의 민간인 지역에도 포격과 공습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해 크리스마스이브에는 군인들이 카야주의 한 마을에서 노인과 여성,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35 명을 산채로 불태웠고, 지난달 말에는 교회가 민간인들의 피난처 역할을 한다는 명목으로 친주의 상펜 기념교회를 파괴하기도 했다. 미얀마는 올해 오픈도어가 발표한 기독교 박해국가 순위 12 위이다. 미얀마의 기독교 박해 수준은 불교 민족주의로 인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얀마 군부가 자행하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에 대한 폭력이 중단되고, 이들의 믿음과 신앙을 존중하며 고통받고 있는 미얀마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도록 또한, 미얀마가 속히 민주적 민간 통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페어필드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지역을 위한 기도: Hamden High School 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